

# '4전5기' 권순우, 메이저대회 첫 승



권순우(23·당진시청·73위)가 '4전 5기' 끝에 메이저대회 단식 본선 첫 승리를 따냈다. 권순우는 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플러싱 메도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본선 1회전 첫 승리를 따냈다. 권순우는 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플러싱 메도의 빌리진 킹 내

## 한국 선수로는 세 번째...US오픈 2회전 진출 세계 17위 사포발로프와 2회전서 맞대결

그가 메이저대회 단식 본선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호주오픈에서 메이저대회 단식 본선 데뷔전을 치른 권순우는 2019년 뮌헨과 US오픈, 올해 호주오픈에서 4차례 메이저대회 단식 본선 무대를 밟았으나 모두 1회전에서 탈락했다. 권순우는 한국 남자 선수로는 이형택(은퇴), 정현(24·144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메이저대회 단식 본선 2회전에 오른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이형택은 2000년 US오픈에서 메이저대회 단식 본선 첫 승리를 신고한 뒤 16강까지 진출했다. 2015년 US오픈에서 메이저대회 단식 본선 첫 승을 수확한 정현은 2018년 호주오픈에서 4강 진출 신화를 이뤄냈다. 권순우는 3일 열리는 2회전에서 세계랭킹 17위 데니스 사포발로프(21·캐나다)를 상대한다. 1세트에서 자신의 서브게임을 내주며 게임 스코어 0-3으로 뒤진 권순우는 격차를 좁히지 못한채 1세트를 내줬다. 권순우는 2세트 게임 스코어 4-4로 맞선 상황에서 자신의 서브게임을 헌납하며 2세트까지 내줄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상대의 서브게임을 처음으로 브레이크하면서 승부를 타이

브레이크로 물고 갔다. 권순우는 자신의 서브로 시작한 타이브레이크에서 먼저 점수를 내줬으나 크위아트코스키의 더블폴트로 동점을 만든 뒤 내리 3득점을 올려 4-1까지 앞섰다. 권순우는 이후 리드를 잘 지켜 세트 스코어 1-1로 따라붙었다. 2세트를 타이브레이크 끝에 가져온 권순우는 완전히 상승세를 탔다. 3세트에서 상대의 서브게임을 잇따라 브레이크하며 게임 스코어 5-1까지 앞서 전세를 뒤집은 권순우는 그대로 3세트를 가져왔고, 4세트에서도 일방적인 흐름을 이어가 승리를 낙했다. 서브에이스 3개를 기록한 권순우는 11개를 터뜨린 크위아트코스키에 밀렸으나 공격 성공 횟수에서는 51-33으로 우위를 점했다. 권순우의 다음 상대인 사포발로프는 21세의 어린 나이에도 한 차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 우승을 차지한 경력 이 있다. 개인 최고 세계랭킹은 올해 1월 13위다. 사포발로프의 메이저대회 최고 성적은 2017년 US오픈 16강이다. 사포발로프는 이날 1회전에서 세바스찬 코르다(20·미국·205위)를 3-1(6-4 4-6 6-3 6-2)로 꺾고 2회전에 합류했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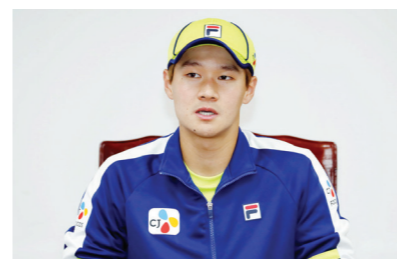
## 본선 첫 승 따낸 권순우 "체력으로 이겨내 기뻐"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음 경기 준비할 것"

'4전 5기' 끝에 메이저대회 단식 본선 첫 승을 거둔 권순우(23·당진시청·73위)가 경기 내용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한층 향상된 체력에 만족감을 표했다. 권순우는 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플러싱 메도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타이-손 크위아트코스키(25·

미국·187위)에 3-1(3-6 7-6(7-4) 6-1 6-2)로 역전승을 거뒀다. '4전 5기' 끝에 메이저대회 단식 본선 무대 첫 승을 따낸 권순우는 "경기 내용에는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동안 메이저대회에서 체력 때문에 졌는데 오늘 체력으로 이겨내 기쁘다. 체력이 좋아진 것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순우는 "조반에 너무 긴장해 생

각했던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 2세트 위기에서 브레이크를 해내고, 타이브레이크를 잡은 후 3세트부터 상대 약점이 계속 보였다"며 "2세트를 가져온 뒤부터 경기가 잘 풀렸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 초반에도 알고 있었지만 상대 백핸드가 많이 약했다. 백핸드에 강타가 없었다. 크로스를 치지 못하고, 다운더라인 위주로 구사하더라"며 "다만 초반에는 내가 긴장해서 범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권순우는 "2회전에서 맞게 된 사포발로프는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랭킹은 높은 선수다.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다"며 "재미있는 경기, 쉽게 몰라나지 않는 경기를 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 KIA 양현중, 7년 연속 10승·100탈삼진 1개차 접근

KBO리그 역대 5번째 대기록 달성 '초읽기'



KIA 타이거즈 에이스 양현중이 7년 연속 10승·100탈삼진 달성을 눈앞에 뒀다. 양현중은 28일 SK 와이번스에서 6이닝 4피안타 9탈삼진 1실점(비자책)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시즌 9승째를 신고한 양현중은 1승을 더하면 이강철(10년), 정민철, 장원준(8년), 유희관(7년)에 이어 KBO리그 역대 5번째 7년 연속 10승을 달성한다. 탈삼진 수 또한 99개로 늘리면서 이강철, 장원준(10년), 정민태(8년), 선동열, 구대성, 류현진(7년)에 이어 7번째 7년 연속 100탈삼진에 1개 만을 남겨뒀다. 좌완투수 7년 연속 10승은 장원

준과 유희관에 이은 통산 3번째, 좌완투수 7년 연속 100탈삼진은 장원준, 구대성, 류현진에 이은 4번째다. 아직 경기수가 많이 남은데다 양현중이 8월 5경기에서 3승을 챙길 정도로 페이스가 좋아 기록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양현중은 2007년 KIA에 입단, 그 해 9월29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서 첫 승을 거뒀다. 선발투수로 본격적인 활약을 시작한 2009년 12승으로 처음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한 양현중은 2014년부터 매년 10승 이상씩을 챙겼다. 2017년에는 본인의 한 시즌 최다인 20승 고지를 밟고 그해 다승 1위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해 KIA를 우승으로 이끈 양현중은 한 시즌에 한국시리즈, 정규시즌 MVP, 골든글러브를 석권한 최초의 선수가 됐다.

뉴시스

## '승격 청부사' K리그2 제주 남기일 감독, 8월의 감독 선정

프로축구 '승격 청부사' 남기일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이 8월의 감독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남 감독을 신라스테이 8월의 감독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K리그2(2부리그) 감독의 수상은

올 시즌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박진섭 광주FC 감독 이후 10개월 만이다. 남 감독이 이끄는 제주는 지난달 하나원큐 K리그2 2020 6경기에서 4승2무로 무패행진을 달렸다. 특히 안산, 부천, 안양과의 최근 3

경기에서 10골을 몰아치며 모두 승리했다. 17라운드까지 10승4무3패(승점 34)로 수원FC를 따돌리고 단독 선두에 자리했다. 남 감독은 과거 K리그2에서 K리그1(1부리그) 승격을 이끈 경험이 두 차례 있어 '승격 청부사'로 불리



다. 2014년 광주FC, 2018년 성남FC를 K리그1로 올려냈다. 남 감독에게는 연맹이 제작한 트로피와 소정의 신라스테이 숙박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 류현진·김광현, 하루 차이 선발 맞대결 일정서 하루밀러...시즌 3승 도전·신인왕 후보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KK'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하루차이로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토론토와 세인트루이스는 1일(한국시간) 이후 경기 선발 등판 일정을 공개했다. 김광현은 2일(한국시간) 오전 7시40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리는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은 하루 뒤인 3일 오전 7시40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말린스 파크에서 벌어지는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출격한다. 류현진과 김광현은 지난달 18일과 23일 같은 날 선발로 등판했다. 둘은 당초 8월 28일에도 동반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론토 선수단이 인종차별에 항의해 28일 경기를 보이콧하면서 류현진의 등판이 하루 미뤄졌고, 하루씩 어긋나 선발 등판에 나서게 됐다.

▲찬란한 8월 보낸 류현진, 9월 첫 등판서도 상승세 이끌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메이저리그가 7월 말에야 개막한 가운데 토론토에서 새 출발한 류현진의 시작은 좋지 않았다. 류현진은 7월에 나선 두 차례 등판에서 에이스 체면을 구겼다. 7월25일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개막전에서 4%이닝 3실점했고, 7월31일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에서 4%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다. 하지만 8월 들어서는 에이스의 면모를 되찾았다. 그는 8월에 나선 5경기에서 패배없이 2승, 평균자책점 1.29의 뛰어난 활약을 선보였다. 아메리칸리그 투수 월간 평균자책점 1위였다. 류현진은 지난달 29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서 기록한 2자책점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고, 1점을 비자책점으로 인정받았다. 이로 인해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3.16에서 2.92로 낮아졌다. 류현진은 나머지 1점에 대해서도 추가 정정을 요구했는데, 나머지 1점도 비자책점이 되면 평균자책점은 더 낮아진다. 류현진은 9월 첫 등판에서 8월의 상승세를 잇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9월 첫 상대는 마이애미다. 류현진은 올 시즌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한 차례 선발 등판했다. 지난달 12일 홈경기에서 6이닝 2피안타(1홈런) 1실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당시 2회초 브라이언 앤더슨에 솔로 홈런을 허용한 것을 제외하고 흠잡을데 없는 투구를

펼친 류현진은 승리 요건을 갖추고 마운드를 내려왔으나 불펜이 무너지면서 승리를 날렸다. 마이애미는 15승 15패를 기록해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2위를 다투고 있다. 팀 타율은 0.237로 30개 구단 중 21위고, 장타율에서는 0.367로 27위에 머물러 있다. 류현진의 선발 맞대결 상대는 식스토 산체스로, 직구 평균 구속이 시속 98.6마일(약 158.7km)에 달하는 강속구 투수다. 올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산체스는 2경기에 등판해 1승 무패, 평균자책점 2.25로 활약했다.

▲'신인왕 후보' 김광현, 시즌 2승·ERA 0점대 '정조준'

팀 사정상 올 시즌을 마무리 투수로 시작한 김광현은 팀 내 선발 투수진의 이탈로 선발 자리를 꿰찬 후 패투를 이어가고 있다. 8월 중순 선발로 보직을 변경한 이후 3경기에 등판했는데 15%이닝을 던지면서 1승 무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0.57의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지난달 23일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해 빅리그 데뷔 첫 승을 품에 안았고, 8월 27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전에서는 6이닝 1실점(비자책점)으로 패투를 펼쳤다. 현지 매체들은 선발로 전환한 이후 매서운 활약을 선보이는 김광현을 신인왕 후보로까지 거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올 시즌 뜨거운 신인 선수를 꼽으며 김광현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광현은 시즌 2승째와 더불어 0점대 평균자책점을 정조준한다. 시즌 평균자책점이 1.08인 김광현은 신시내티전에서 1%이닝 이상을 무실점으로 막으면 0점대 평균자책점을 노려볼 수 있다. 김광현이 상대한 신시내티는 15승 20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4위에 머물러 있다. 신시내티는 올 시즌 팀 타율 0.216에 그치며 타격 부진을 보이고 있다. 좋은 기억도 있다. 지난달 23일 김광현이 시즌 첫 승을 거둔 상대가 신시내티다. 선발 맞대결 상대가 만만치 않은 것이 김광현에게는 결실물이다. 신시내티는 2일 경기에 우완 에이스 소니 그레이를 선발로 내세운다. 2019시즌 11승 8패 평균자책점 2.87을 기록한 그레이는 올스타에 선정됐고, 사이영상 후보에 올라 최종 7위를 차지한 선수다. 올 시즌에도 7경기에 등판해 5승 1패 평균자책점 1.94로 패조의 컨디션엔 자랑 중이다.

뉴시스